

## 김민석 국무총리,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방문... 집중호우·폭염 대비 태세 점검

- 열대야주의보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관계기관 유기적 협업 체계 가동 지시
- 기상예보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 확보 당부
- 24시간 교대 근무 중인 예보관들의 노고 치하 및 격려

【관련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5일(금) 오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

○ 이번 방문은 극단적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 기상현상이 상시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자연재난 대비 태세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 방재 활동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기상청의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총리는 이미선 기상청장으로부터 여름철 기상전망\*과 특보제도 개편 및 재난문자 확대를 골자로 한 방재기상·지진대책을 보고받았다.

\* (여름철 기상전망)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겠음

○ 주요 내용으로 올여름부터 일최고체감온도 38℃ 이상의 극단적 폭염 시 최상위 경고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야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열대야주의보’를 도입한다.

○ 또한, 기존 긴급재난문자에 추가하여, 시간당 100mm 수준의 재난성호우 발생 시 읍·면·동 단위로 즉각적인 대피를 유도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강한 지진(예상진도 VI 이상)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지진조기 경보 시간을 기존 5~10초에서 3~5초로 단축할 계획이다.

- 김 총리는 이날 기상청 국가기상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서는 예보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 “올해 신설되는 열대야주의보 등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기상정보와 관련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 아울러 “우리나라 기상예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역시 높다”며, “그만큼 기상청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김지성 (044-200-2341)
		담당자	사무관 박익태 (044-200-2684)

